



착공 불꽃 29일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교 인근 고수부지에서 열린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에서 기념 발파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산강 프로젝트의 서막을 알리는 이날 착공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중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신정훈 나주시장을 비롯한 영산강 유역 8개 지자체 시장·군수, 지역인 등 모두 700여 명이 참석했다. /위직랑기자 jrwi@kwangju.co.kr

‘영산강 프로젝트’ 첫 삽 뜨다

한승수 총리 등 참석 나주서 기공식 ... 7년간 8조5천억 투입

수질 개선과 뱃길 복원 등 영산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영산강 프로젝트'가 29일 마침내 착수됐다. <관련기사 3면>
국토해양부는 29일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교 인근 고수부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중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최인기·이윤석 국회의원, 신정훈 나주시장 등 영산강 유역 시장·군수 8명, 지역인 등 모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사업과 함께 선도사업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업비가 투입되는 영산강 프로젝트는 전남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영산강을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광주·전남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정부는 영산강에 1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모든 사업을 2011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핵심적

인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영산강은 호남의 젖줄이자 문화·관광의 터전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영산강 프로젝트는 수질개선과 치수대책 수립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영산강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개발하는 것은 용인되어야 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영산강 문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협의회 의장인 신정훈 나주시장은 "녹색생명의 터전을 위한 다짐"에서 "영산강 유역 8개 시·군 지

역민들은 영산강의 생명을 살리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정부에서도 영산강 친환경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겨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산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영산대교 주변 6.7km 구간에서 383억원 투입해 생태하천 6.7km, 제방보강 3.2km, 호안보호공 6.7km, 자전거도로 6.7km, 산책로 21km, 축구장을 갖춘 수변공원 4개소, 생태습지 3개소, 초지원 3개소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에 전면전 선언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29일 이스라엘 가자지구를 장악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전면전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6면>
바라크 국방장관은 "우리는 가자지구 주민에게는 아무런 적대감도 없지만 하마스 및 그 대리인들과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작전은 필요한 만큼 확대되고 깊어질 것"이라며 "(이스라엘 남부에 로켓탄 공격을 해대는) 상황을 바꾸고 (이런 공격을) 자행하는 하마스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전쟁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교묘하게 민간인 틈에 숨어 공격을 감행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민간

간인 타격을 피할 것"이라면서 "어린이와 여성이 다치는 상황을 원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막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바라크 국방장관의 발언은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연협뉴스

뇌물 범죄 자백하면 처벌 수위 낮춰준다

법무부 업무보고

수사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놓으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 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관련기사 5면>

또한 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도산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기 위해 국제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금융 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 조건부 진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뇌물, 청탁 등 불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부패의 근원인 기업의 비자금 조성 행위를 엄단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환경 범죄나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으로 확대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생계형 범죄자의 범행 배경, 피해액,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절반 또는 3분의 1로 낮춰 구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통상 3월말에 수립했던 정부의 입법계획을 2개월 단축, 내년 1월말까지 조기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법안이 내년 상반기내 국회에 제출되도록 정부 입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익위도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 읍부즈맨을 운영하고,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선진국 진입이 달성되는 데 그 중심이 법치"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알림

‘광일춘추’ 필진 바꿉니다

전국 대표 지방 전문가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국내 정상급 필진들을 초대, 공동 게재하는 목요일 '광일춘추' 필진이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부산일보, 매일신문, 경남신문, 강원일보, 경인일보, 대전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9개사는 각계 권위 인사들로 새롭게 필진을 구성,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날카롭게 파헤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정중섭 교수 김지하 시인 전성철 이사장 백홍열 전 원장

◇정중섭 서울대 법대 교수

▲1957년생 ▲서울대 법대 졸업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 법대 교수 ▲저서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중섭 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등

◇김지하 시인

▲1941년생 ▲서울대 미학과 졸업 ▲국제시인회 위대한 시인상 ▲이상·정지용·만해·대산·공초 문학상 ▲만해 대상 ▲동국대·원광대 석좌교수 ▲시집 '황토', '타는 목마름으로' 산문집 '밥', '생명' 등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IGM) 이사장

▲1949년생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 미네소타주립대 법학 박사 ▲미 뉴욕주 변호사회 회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 ▲저서 '변화의 코드를 읽어라' 등

◇백홍열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1953년생 ▲미 코넬대 응용물리학 박사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개발실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국제우주대회(IAC)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국제우주아카데미 정회원

光州日報社

우리 아이 키? 성장클리닉
371-1075-6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한걸음! 한걸음!
이젠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2008년 3월 1일(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
주최: 광주광역시, 후원: 광주일보, 전남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